

구 기타하마 지구 창고군

1882년에 내륙의 광산에서 항구로 석탄을 운반하는 홋카이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타루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가하는 항구 이용 수요에 맞춰 해안 매립이 이루어져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1889년에 매립지에 만들어진 기타하마 지구는 항구와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오타루 운하의 북쪽 끝에 가까운 기타하마 지구에는 해운 회사들이 지은 석조 창고 6 채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데미야 철도 시설 근처에 있는 3 개 창고는 후쿠이현과 이시카와현 출신의 일족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1889년에 지어진 히로우미 창고와 1894년에 지어진 우콘 창고, 1903년에 지어진 마스다 창고입니다.

다른 3 개의 창고는 중앙 거리에 가까운 오타루 운하를 따라 있습니다. 1890년에 지어진 오타루 창고와 1891년에 지어진 오이에 창고, 1895년에 지어진 시부사와 창고입니다. 이 3 개 창고는 오타루 운하에 접해 있으며, 이곳에 바지선이 정박하여 선박에서 항구로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창고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사와 창고의 문 상부에는 이중 아치형 석재 장식이 있으며, 오타루 창고군의 솟을지붕 용마루에는 건물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상상 속의 바다 생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